

NOVEMBER  
2022

# M LUXURY



**CHAUMET**  
PARIS





FENDI

<LUXURY M>은 2016년 창간 이래 최고의 프리미엄 매거진 <LUXURY>의  
기획과 진행으로 <매일경제>의 주요 지국과 <LUXURY> 독립 배본망을 통해 배포되는,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를 잇는 시티 라이프스타일 미디어입니다.

# Contents

SPECIAL

## SEOUL BEAUTY TRAVEL WEEK

08

INNOVATOR

서울뷰티트래블위크의 양태오 총괄 디렉터

04 HEAD TO TOE

이달에 알아야 할 정보와 트렌드

18 STYLE

가을과 겨울 사이를 채워줄 부드러운 니트웨어

24 TREND

책을 넘기는 순간 드러나는 곡선을 품은 주얼리

30 PREVIEW

각 분야 에디터들이 꼽은 이달의 신제품

34 REVIEW

뷰티 피플이 평가한 핸드크림

36 DESIGN SPOT

노매드 워커를 위한 일하기 좋은 카페



나폴레옹 황제와 조세핀의 러브 스토리를 담아  
내며 쇼메를 대표하는 아이콘으로 자리 잡은 '리  
앙'컬렉션. 한 줄 또는 크로스 링크와 사선으로  
이루어진 독창적인 디자인은 벨 에포크 시대에  
화관으로 빈번히 사용된 리본 매듭 모티프에서  
영감을 받았다. 연인이나 가족 사이의 깊은 인연  
과 사랑, 과거와 현재의 연결 고리를 의미한다.  
'감성을 전하는 주얼리'라는 쇼메의 철학을 보여  
주는 상징적 컬렉션이다.

2022년 11월호 통권 제73호  
2022년 10월 28일 발행(매월 발행)  
2016년 10월 12일에 등록, 등록번호 서울 중. 라-00650  
발행 공급처 (주)디자인하우스(02-2275-6151)  
주소 서울시 중구 동호로 272  
출력 (주)에이디코아(02-323-6493)  
인쇄처 M-print(031-8071-0960)  
이 잡지의 일부 기사는 간접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LUXURY.DESIGNHOUSE.CO.KR

LUXURY EDITORS

### EDITORIAL

#### EDITOR IN CHIEF

윤정은 Jungeun Yoon · yoon29@design.co.kr

#### FASHION EDITOR

홍혜선 Hyesun Hong · hhs@design.co.kr  
김송아 Songah Kim · songahkim@design.co.kr

#### BEAUTY EDITOR

이지형 Jihyung Lee · jh.lee@design.co.kr  
정두민 Doomin Jeong · dmj@design.co.kr

#### LIVING & FEATURES EDITOR

김수진 수석 기자 Sujin Kim · jin@design.co.kr  
안서경 Seogyong Ahn · seo@design.co.kr  
한동은 Dongeun Han · dehan@design.co.kr

#### ART DIRECTOR

손익원 Ikweon Sohn · bart@design.co.kr

#### DESIGNER

홍수연 Sooyoun Hong · syhong@design.co.kr  
김보성 Bosung Kim · today17@design.co.kr  
최덕희 객원 디자이너 Duckhee Choi

#### PHOTO DIRECTOR

이우경 Wookyoung Lee · watt@design.co.kr

#### PHOTOGRAPHER

이기태 · 이경옥 · 이창화 · 김은지 · 박성연

#### STONE STUDIO

염정훈 Junghoon Yum · 황인우 Inwoo Hwang

#### COPYREAD

전남희 Namhee Jeon

### ADVERTISING

#### DIRECTOR

이경호 Kyongho Lee · paradise@design.co.kr

#### CHIEF MANAGER

김수진 Soojin Kim · kimsoojin@design.co.kr

#### SENIOR MANAGER

정혜림 Hyerim Jeong · hr.jeong@design.co.kr

#### ASSISTANT MANAGER

도현준 Hyunjoon Do · gihun0604@design.co.kr

#### DISTRIBUTION MANAGER

송은우 Eunwoo Song · ewsong@design.co.kr

#### DEPUTY MANAGER

이건태 Guntai Lee · guntai77@design.co.kr

### DESIGN HOUSE INC.

#### DIRECTOR OF DESIGN BUSINESS

이민형 디자인프레스(주) 대표 겸직 Lucy@design.co.kr

#### DIRECTOR OF EXHIBIT BUSINESS

조상연 이사 Sangyeon Cho · csy@design.co.kr

#### DIRECTOR OF BUSINESS STRATEGY

이영임 상무 Youngim Lee · yilee@design.co.kr

#### LEGAL ADVISOR

김영철 변호사 · 변리사(법무법인 KCL)

#### DIVISION LEADER

김은령 부사장 exlibris@design.co.kr

#### PRESIDENT · PUBLISHER

이영혜 대표이사 · 발행인



# BVLGARI

ROMA

OCTO FINISSIMO

# BACCARAT × POKÉMON

포켓몬 마니아라면 주목! 크리스탈 브랜드 바카라가 25주년을 맞은 포켓몬과 만나 '포켓몬 피카츄 & 몬스터볼'을 선보인다. 바카라의 크리스탈 장인들이 빚은 귀여운 피카츄와 포켓몬의 상징 포켓몬볼로, 한정수량 제작해 선착순으로 판매한다. 11월 3일까지 메종 바카라에서, 11월 4일부터 17일까지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3층 팝업 스토어에서 만날 수 있다. (HDE)



## REINTERPRETED FURNITURE

**FRITZ HANSEN** 모던 가구 디자인의 대가 아르네 야콥센(Arne Jacobsen)이 1955년 선보인 라이팅 데스크 'FH3605™'이 한층 현대적 소재로 탈바꿈했다. 월넛과 애시 블랙 컬러 2가지 우드 소재 상판 중 고를 수 있고, 블랙 컬러로 코팅해 간결한 스틸 레그를 선택할 수 있다. 상판 아래에는 서랍도 추가할 수 있어 실용성을 더했다. 6959-9943

**CARL HANSEN & SON** 1945년 기능주의 건축의 선구자 빌헬름 라우리첸(Vilhelm Lauritzen)이 완성한 코펜하겐의 대표 건축물 '라디오후셋(Radiohuset)'. 과거엔 덴마크 공영 방송사로, 현재는 덴마크 왕립음악원의 공연장 중 한 곳으로 사용되는 이곳에는 칼한센앤선의 미학적 가구 컬렉션 '포이어 시리즈'가 채워져 있다. 오리지널 디자인을 재탄생시킨 이 시리즈를 국내에서도 만날 수 있다. carlhansen.com (ASG)



EDITOR 김수진(KSJ)·이지형(LJH)·안서경(ASG)·정두민(JDM)  
한동은(HDE)·김송아(KSA)

# Head

## SKIN SOOTHING

**CNP** 투명한 생기, 보습, 진정 케어까지 한 번에 가능한 스틱 타입의 '프로폴리스 멀티 앰플 밤'을 출시한다. 프로폴리스 추출물을 함유해 피부에 보습과 영양을 부여하는 것은 물론 비타민 C 유도체가 주름 개선과 미백 효과까지 발휘한다. 주름 지기 쉬운 목이나 건조한 입술에 바르거나 메이크업 전후에 사용하면 좋다. 080-023-7007

**D'ALBA** 환절기 급격한 기온차로 민감해진 피부를 위한 '마일드 스킨 밸런싱 비건' 3종을 제안한다. 식물성 세정 성분을 담은 미세한 거품이 피



부속 노폐물을 자극 없이 세정하는 클렌저, 진정 및 보습, 각질까지 케어하는 저자극 토너, 산뜻한 텍스처로 바르는 순간 청량감과 촉촉함을 선사하는 워터 크림으로 구성했다. 332-7727

**DR.G** 물에서 자라 강한 보습력을 지닌 아쿠아 병풀과 진정 성분이 민감해진 피부를 다독이는 '레드 블레미쉬 클리어 모이스처 토너'. 모이스처 버블 에센스 제형으로 세안 후 건조한 피부에 촉촉한 수분을 공급한다. 민감성·여드름성 피부의 인체 적용 시험을 완료해 누구나 안심하고 사용 가능하며 속 땅김, 각질, 갈라진 피부를 촉촉하게 잠재운다. 1811-9415 (JDM)

DR.G

# A BAG FOR AUTUMN



FENDI



MARNI



LONGCHAMP



FONTANA MILANO 1915

**LONGCHAMP** 로맨틱한 러브 레터가 담긴 우편함을 형상화한 '메일 박스' 백은 앞면에 주머니가 있고 사다리꼴 셰이프라 짐이 많아지는 F/W 시즌에 제격이다. 이번 시즌 사이프러스와 블러시 컬러를 새롭게 공개한다. 543-7685

**FENDI** 펜디의 아이코닉한 '피카부' 캡슐 컬렉션을 계절이 느껴지는 컬러와 소재로 출시한다. 부드러운 그레이н 가족에 볼드한 셀러리아 Selleria 스티치를 더한 민트 그린, 스웨이드 소재의 캐멀 컬러가 그것. 2056-9023

**MARNI** 아코디언 형태의 넉넉한 수납공간이 실용적인 '트렁크' 숄더백이 출시 10주년을 맞았다. 소프트 레더부터 사피아노, 램스킨 등 다채로운 소재와 아름다운 색상 조화로 선택의 폭이 넓다. 3479-6013

**FONTANA MILANO 1915** 100년 전통의 이탈리아 핸드백 브랜드, 폰타나 밀라노 1915가 처음 선보이는 '아레스' 컬렉션. 승마 안장에서 영감을 얻은 부드러운 곡선과 F 로고 트위스트 잠금장치가 돋보인다. 541-2771 (KSA)

## HAPPY 100TH ANNIVERSARY

**VALRHONA** 1922년 페이스트리 셰프 알베리크 기론 Albcric Guirone이 설립한 프랑스 프리미엄 초콜릿 브랜드 발로나. 200명의 감정사와 함께 오직 '초콜릿'에만 집중하는 전문 브랜드로 성장해왔다. 창립 100주년을 맞아 다양한 코코아를 조합한 신제품 '코문투 Komuntu' 초콜릿을 출시하고 올 한 해 동안 이 제품으로 얻은 모든 수익을 코코아 농부에게 재분배할 예정이다. [valrhona.asia/kr-KR](http://valrhona.asia/kr-KR)

**HARIBO GOLDBÄLEN** 세계적인 젤리 브랜드 하리보의 아이코닉한 곰돌이 모양 젤리 '골드베렌'이 100주년을 맞았다. 100번째 생일을 기념해 인사 센트럴 뮤지엄에서 세계 최초로 하리보 미디어 전시가 열린다. 하리보 굿즈가 가득한 '하리보리안의 방', 다채로운 동식물 젤리로 이뤄진 판타지 공간 '야생젤리보호구역', 창립자 '한스 리겔 Hans Riegel의 도서관' 등 골드베렌에 얽힌 다채로운 스토리를 만날 수 있다. 2023년 3월 12일까지. [hariboworld.modoo.at](http://hariboworld.modoo.at) (KSJ)

# to T O P O E



VALRHONA



HARIBO GOLDBÄLEN

# SUPER MOISTURIZING

## DIOR

로즈 드 그랑빌의 강한 생명력을 담아 노화의 징후를 효과적으로 개선하는 '디올 프레스티지 라 크렘 인텐시브 리페어링 크림'을 추천한다. 080-342-9500

## DECORTE

다중층 바이오 리포솜 캡슐이 피부를 하루종일 촉촉하고 부드럽게 가꿔주며 강력한 안티에이징 효과를 선사하는 '리포솜 어드밴스드 퍼플 리본 에디션 리포솜 크림'을 소개한다. 080-568-3111



## CHANTECAILLE

피부 리듬이 깨지기 쉬운 환절기, 유·수분 밸런스를 완벽하게 맞춰주는 '밸런싱 모이스처라이저'를 선보인다. 해양에서 추출한 포스트바이오틱스, 식물 줄기세포 추출물이 피부 장벽을 강화하기까지. 070-4370-7511(LJH)

PHOTOGRAPHER 영정환

## PHOTO EXHIBITION

**<MAGNOLIA>** 사진집 <고수의 도구>로 2022년 대한출판문화협회에서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책' 1위에 선정된 포토그래퍼 정정호. 그의 사진전 <매그놀리아>에서 작가가 라이카 M 시스템 디지털카메라로 집 앞마당에서 움트는 목련을 담은 사진들을 만날 수 있다. 작가는 식물의 탄생부터 죽음까지의 과정을 포착하며 존재의 숙명에 대해 고찰한다. 부산 BMW 포토 스페이스에서 9월 23일부터 12월 31일까지.

**<FANTASY>** 포토그래퍼이자 비주얼 디렉터 그리고 그래픽디자이너 조기석. 현재 가장 감각적인 이미지를 만드는 전방위적 아티스트 조기석의 국내 첫 사진전 <판타지>가 10 꼬르소 꼬모 서울 청담점 3층 갤러리 스페이스에서 열린다. 현실과 초현실을 넘나들며 강렬한 인상을 남기는 작가의 대표작 30여 점을 엄선했다. 10월 21일부터 11월 20일까지. (HDE)

## <MAGNOLIA>



<FANTASY>

## CAR DRIVING

볼보 V60 크로스컨트리 10월의 비 내리는 오후, 신형 'V60 크로스컨트리'를 타고 강릉을 달렸다. 주행 코스는 해안 도로와 고속도로를 번갈아 타는 약 60km의 길. V60 크로스컨트리는 세단과 SUV의 장점을 결합한 왜건 형태로 널찍한 내부 공간이 여유롭다. 특히 지형이나 날씨에 상관없이 안정적인 접지력을 지원하는 AWD 시스템을 탑재해 장대비가 쏟아지는 상황에서도 휠이 밀리거나 노면에 뜨는 듯한 느낌 없이 편안하게 주행할 수 있다. '안전'에 진심인 볼보는 이번 신형 모



델에 완성도를 높인 첨단 커넥티비티 및 인포테인먼트와 최신 ADAS 센서 플랫폼을 도입했다. 최첨단 기술이지만 운전할 때는 복잡한 조작이 필요치 않다는 것이 핵심. 음성인식만으로 내비게이션 설정, 음악 탐색, 전화 및 문자 발송 등 주행 중 필요한 웬만한 일상 활동이 가능해 운전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해준다. '아리아'를 불러 버튼 조작 하나 없이 비 오는 날에 어울리는 음악을 재생하고, 카페에 원하는 음료 메뉴를 문자로 미리 주문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와 도로 이탈 방지 보호 시스템 덕분에 시야 확보가 어려운 빗 속에서도 편안한 주행이 가능했다. 굳은 날씨 속에서 빛나는 볼보의 진가를 확인했다. 1588-1777 (KSJ)

# CELEBRITIES AT THE EVENT



제79회 베네치아 영화제에서 꽃다발을 연상시키는 스키아파렐리의 룩을 입고 등장한 케이트 블란쳇. 여기에 루이 비통 하이 주얼리로 에지 있는 포인트를 더했다.



뮤지션 테일러 스위프트는 제47회 토론토 국제영화제를 황금빛으로 물들였다. 어깨의 체인 장식이 눈부신 시퀀 드레스는 루이 비통 제품.



제31회 부일 영화상 시상식에 참석한 배우 임시완. 깔끔한 돌체앤가바나의 블랙 슈트를 입었다.



이자벨 마랑의 오렌지 컬러 오프숄더 니트 윙피스와 화이트 사이하이 부츠를 착용하고 2023 S/S 컬렉션에 참석한 선미.



알렉산더 맥퀸의 비대칭 테일러드 재킷과 시가렛 팬츠, 화이트 켈시 부츠를 착용하고 등장한 티모시 샬러메. 영화 <본앤올>로 제66회 BFI 런던 영화제 시사회에 참석했다.

돌체앤가바나의 시퀀 머메이드 드레스를 입고 부산국제영화제 2022 레드 카펫에 선 노윤서.



제19회 취리히 영화제에 참석한 영화배우 다이앤 크루거. 알렉산더 맥퀸의 2022 F/W 컬렉션 톱과 비대칭 드레이프 팬츠를 착용했다. (KSA)

## BODY RITUAL

**LOIVIE** 시그니처 향을 담은 '퍼폼드 바디 케어 & 핸드 워시'를 선보인다. 풍성한 거품을 내는 '퍼폼드 바디 워시', 보습 효과가 뛰어난 '퍼폼드 바디 로션', 손 씻는 시간을 즐겁게 해줄 '퍼폼드 핸드 워시' 3종으로 만날 수 있다. 1644-4490

**L:A BRUKET** 건조한 공기로 인해 손상된 손을 건강하고 부드럽게 가꾸주는 '리쥬브네이팅 핸드 세럼'을 출시한다. 엘지 추출물, 히알루론산이 풍부한 보습 효과를 선사하고, 비타민 C가 브라이트닝 효과를 낸다. 1644-4490



**GIVENCHY** 오렌지 블라섬, 투베로즈 그리고 베티베르가 절묘하게 어우러지며 관능적인 향을 완성하는 '랑데르디' 향을 이제 샤워 오일, 보디 밀크 그리고 디오더란트까지 다채롭게 경험할 수 있다. 080-801-9500 (LJH)



SPECIAL

# SEOUL

외적인 아름다움에 국한되지 않고, 새로운 의미의 아름다움을 찾아 나서기 위한 여정 '서울뷰티트래블위크 2022'.  
서울의 역사와 전통이 오롯이 깃든 종로에서 그 서사가 시작된다. 서울시가 엄선한 심, 맛 그리고 멋을 소개한다.

EDITOR LEE JIHYUNG·JEONG DOOMIN PHOTOGRAPHER LEE HYUNSEOK



# TRAVEL

# BEAUTY



바야흐로 외적인 아름다움과 동시에 내적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시대다. 서울 시에서 '뷰티'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알리기 위해 뷰티, 라이프스타일, 문화 생활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서울뷰티트래블워크 2022'를 열었다. '서울뷰티트래블워크'는 서울시 홍보대사이자 세계 3대 아트 전문 출판사 파이돈이 선정한 세계 100대 공간 디자이너로 이름을 알린 태오양스튜디오의 양태오 디자이너의 총괄 아래 이루어졌으며 한국의 멋과 전통이 살아 있는 종로 일대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행사는 특히 그저 아름답게 꾸며진 것, 혹은 상품을 보는 것과 같은 수동적 형태의 행사가 아닌 참여형 체험 프로그램으로 능동적 형태인 형식이라는 점에서 기존의 뷰티 행사와 차별화했다.

서울뷰티트래블워크가 소개하는 이 시대의 본질적인 아름다움은 3가지 카테고리에 의해 구현된다. 잘 쉬는 것(rested), 건강하게 먹는 것(refreshed), 그리고 활력을 되찾는 것(rejuvenated). 이를 위해 서울시 민속 문화재 가회동 한씨 가옥인 '취경재'를 중심으로 선정했다. 먼저 잘 쉬는 것(rested) 카테고리에는 집이 아닌 좋은 장소에서 숙면과 휴식의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다수의 숙박 플랫폼과 협업했다. 종로에 위치한 호텔은 이색숙소를 추천했다. 건강하게 먹는 것(refreshed) 카테고리에서는 평소 접하기 힘든 사찰 음식, 건강식, 다도 등을 소개하는 레스토랑의 프로모션으로 미식을 통한 뷰티를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활력을 되찾는 것(rejuvenated) 카테고리는 '행복작당' 행사와의 협업을 통해 다양한 문화 공간을 방문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 이외에도 전시, 등산, 사이클링 등 몸과 마음의 활력을 되찾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연계해 체험해볼 수 있도록 했다.

화장품, 미용 등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에 갇히지 않고 건강한 몸과 마음을 다지는 것이 이 시대가 추구하는 아름다움의 본질이다. 서울시는 종로구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몸과 마음을 위한 풍부한 경험을 선사하는 지역을 선정해 이와 같은 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 WEEK 2022

# RESTED

조선 왕실의 궁은 물론 고즈넉한 정취가 흐르는 한옥이 모여 있는, 서울 중의 서울인 종로에서 즐기는 숙면과 휴식.



## 하은재

‘영화와 휴식이 있는 은자들의 거처’라는 의미를 담은 공간 ‘하은재’. 이 공간은 세상으로부터 숨어 든 자(은자)의 집이라는 의미를 지닌 다산 정약용 선생의 ‘은자의 거처’에서 영감을 받은 곳이다. 역시 복잡한 일상에서 벗어나 내면에 온전히 집중하기 좋은 공간이다. 고즈넉한 분위기를 물씬 풍기는 중정과 툇마루를 중심으로 마당, 침실, 다이닝룸 그리고 영화실이 7자 형태로 마련되어 있다. 아담한 주방에는 조리 도구, 식기 등이 갖춰져 있어 자유롭게 식사를 즐길 수 있고 차와 커피를 위한 티포트와 핸드 드립 세트도 구비되어 있다. 공간의 의미에 맞게, 자신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돕는 영화와 족욕 공간도 발견할 수 있다. 소란한 일상에 거리를 두고 오롯한 휴식을 즐기고 싶다면 좋은 선택이 될 것이다.

📍 종로구 자하문로 68-10 🌐 [losthouse.co.kr](http://losthouse.co.kr)

## 아담한옥

서촌 골목 안에 조용한 안식처처럼 자리한 이곳은 ‘아담한옥’. 복잡하고 숨 가쁜 일상에서 벗어나 진정한 휴식을 즐기고 싶은 이들을 위한 스테이 공간이다. ‘아담한옥’의 공간 콘셉트는 적게 소유하며 본질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것, 이름을 닮은 아담한 전통 한옥 공간에는 휴식의 시간에 꼭 필요한 것들이 최소한의 형태로 모여 있다. 1층에는 소박한 음식을 만들어 먹고 싶어지는 작은 주방과 햇살이 부서지는 안락한 거실, 화장실이 자리 잡고 있으며, 2층에는 숙면을 위한 포근한 침실이 마련되어 있다. 마당 한편에는 작은 노천탕이 있어 편안한 휴식을 즐기기에 더할 나위 없다.



📍 종로구 필운대로 6길 21 🌐 [adamhanok.com](http://adamhanok.com)



### 한옥에세이 서촌

누하동, 작은 골목에 들어서면 소박한 삶과 생활을 꿈꾸게 되는 공간을 만나게 된다. '한옥에세이 서촌'은 도심 속 혼란과 소음으로부터 벗어나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한옥 스테이다. 소담한 중정은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입구의 라운지체어와 난로 그리고 음악이 흐르는 스피커는 안락한 기분을 선사한다. 내부에는 따스한 조명이 공간을 포근하게 감싸기까지. 완벽한 휴식을 위한 욕조 공간도 따로 마련해 더욱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한옥에세이 서촌'은 고요한 시간을 누리고 싶은 이들에게 최적의 안식처가 될 것이다. 공간에 들어서는 순간 '도심 속 휴식'이라는 말에 저절로 공감하게 된다.

📍 종로구 필운대로 3길 12 🌐 hanokessay.com

### 스테이폴리오 김완석 팀장

서울뷰티트래블워크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국내를 넘어 해외에 있는 여행객에게 스테이폴리오가 전하는 심의 가치를 전달하고 싶다. 서울의 아름다움을 체험할 수 있는 뷰티트래블워크의 비전과 부합한다는 생각에 참여하게 되었다.

터전을 종로구에 잡은 이유가 있다면? 종로구, 특히 서촌은 옛것과 현대적인 것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면서, 다양한 브랜드와 상점들이 좁은 골목마다 이어져 있는 특별한 동네다. 스테이폴리오 멤버들이 직접 경험한, 서촌의 매력을 더 많은 사람에게 나누고자 다양한 공간을 만들었다.

공간에 머무는 고객에게 선사하고 싶은 경험은 무엇인가? 공간에 머무는 고객은 오랜 시간과 고민 끝에 스테이할 공간을 선택한 뒤 공간에 머무르게 된다. 그 공간에서의 경험은 그만큼 가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가치를 전달하기 위해 침과 환대를 위한 5가지 요소로 빛, 온도, 향, 음악, 촉감을 제안하며, 나름의 관점에 부합하는 다양한 공간을 선별해 소개하고 있다.

'휴식' 혹은 '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스테이폴리오에서 제안하는 스테이는 단순히 잠을 자는 곳이 아니라 공간 자체에 공감하고 생각을 정리하며, 나아가 지역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다. 이처럼 머무르는 것 자체가 휴식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이나 목표가 있다면? 지역 내 다양한 브랜드와 호흡하면서, 국내뿐만 아니라 서울에 찾아오는 다양한 국외 여행객들에게도 서촌의 매력을 전달하고자 한다.



# REFRESHED

건강한 먹거리를 통해 몸과 마음에 편안한 위로를 주고 맛의 아름다움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백미당

1964년부터 오랫동안 다채로운 메뉴로 건강하고 즐거운 식문화를 전해온 '백미당'. 지금은 유기농 아이스크림 전문 카페로 목장주가 정직하게 생산한 유기 축산물 인증 원유를 사용해 만든 아이스크림이 시그너처 메뉴다. 또한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느림의 미학으로 키운 유기농 원두의 자연스러운 산미와 단맛이 어우러진 커피도 판매한다. 백미당은 이름처럼 순수하고 청정한 '흰 백(白)'의 이미지를 바탕으로, 유기농 원료를 사용한 '진솔한 맛'을 전하고 계절에 따라 제철 식재료를 적절히 사용한 창의적인 메뉴를 선보여 이곳을 찾는 모든 이에게 건강하고 편안한 시간을 제공하고자 한다. 긴 세월 동안 꾸준히 한 우물을 파온 노력이 돋보이는 이곳에서는 한국 작가들의 멋스러운 공예품까지 만나볼 수 있다.

📍 종로구 삼청로 48 🌐 1964baekmidang.com



## 발우공양

1700여 년의 한국 불교 역사 속에서 태어난 수행 음식인 사찰 음식 문화를 널리 알리고자 한국불교문화사업단에서 유일하게 직접 운영하고 있는 사찰 음식 전문 레스토랑이다. 사찰에서 면면히 전승되고 있는 전통적인 조리법과 우리나라 고유의 음식 문화 원형을 간직한 건강식을 통해 사찰 음식의 전통과 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음미할 수 있다. 음식을 먹는 일도 진리를 깨닫는 과정으로 여겨 선정의 기쁨을 의미하는 '선식', 바른 소원을 의미하는 '원식', 스스로 마음을 다스리는 '마음식', 진리를 깨닫는 기쁨을 의미하는 '희식', 이외에 '법식'까지 총 5가지로 메뉴를 구분하고 사계절에 따라 제철 음식을 사용한 다채로운 메뉴를 선보인다. 몸은 물론 마음까지 함께 튼튼해지는 건강식을 찾는다면 '발우공양'을 방문해보자.

📍 종로구 우정국로 56, 5층 🌐 balwoo.or.kr

## 티테라피

부쩍 서늘해진 계절에 따뜻한 차 한잔으로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 한국 전통 재료를 사용해 자신의 체질에 맞는 차를 골라 마실 수 있는 한옥 전통 찻집, '티테라피'가 바로 그 주인공. 사상체질을 근거로 다채로운 차를 제공하는 이곳은 몸과 마음이 지친 현대인에게 잠시나마 휴식과 위로를 선사하고자 종로구에 터를 잡았다. 특히 외국인을 위한 특별한 메뉴인 '나만의 차'가 인상적인데, 체크리스트 작성 후 전문 티테라피스트와 상담을 거쳐 블렌딩한 여러 가지 차를 맛볼 수 있다. 여기에 박하와 계피를 사용한 족욕 물에 발을 담그고 쉴 수 있는 공간까지 마련되어 있어 진정한 휴식과 위로를 느끼기에 더할 나위 없다. 전통 요소로 가득 찬 티테라피에 둘러싼 휴식을 즐기고 소중한 사람들에게 차를 선물해보는 것은 어떨까.

☉ 종로구 윤보선길 74    🌐 teatherapy.com



### 티테라피 이은경 대표

서울뷰티트레블워크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이번 서울뷰티트레블워크의 총괄 디렉터인 양태오 대표가 우리 매장을 1순위로 추천했다고 들었다. 종로구 일대에서 우리처럼 소규모로 운영하고 있는 가게들에게 힘을 실어주고자 했던 것 같다. 마침 우리의 콘셉트가 행사 취지와도 잘 맞다고 생각해서 참여하게 됐다. 사실 행사 이전엔 양태오 대표와 따로 친분이 있지 않았는데, 매장에 자주 오신다고 하니 기회가 되면 제대로 인사를 나눌 생각이다.

공간에 머무는 고객에게 선사하고 싶은 경험은 무엇인가? 티테라피는 말 그대로 '차로 테라피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테라피'는 '치료하다'라는 뜻으로 보통 쓰이지만 '치유'의 의미도 있다. 차를 통해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위로한다는 뜻을 담았다. 전통적인 재료로 정성껏 만든 차 한잔과 따뜻한 족욕으로 바쁘고 지친 현대인에게 조금이나

마 휴식과 위로를 전할 수 있는 문화 공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 새로운 목표가 있다면? '한국 차' 하면 떠오르는 대표 이미지의 차를 만들고 싶다. 외국인에게 물었을 때 보통 인삼 차나 대추차를 한국의 차로 떠올린다고 한다. 하지만 이런 차들은 오랜 시간 끓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그래서 서양의 허브 티처럼 간편하게 뜨거운 물에 우려서 먹을 수 있게끔 만든 것이 우리 매장의 티테라피 차다. 인삼과 대추뿐만 아니라 구기자, 당귀, 황기, 둥글레 등을 허브 티 형태로 만들어 간단한 유리 티포트에 제공한다. 세계인들이 한국 차를 떠올렸을 때 허브티처럼 간단하고 편안하게 마실 수 있는 차가 티테라피의 상징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앞으로의 꿈이다.

# REJUVENATED 몸을 움직이고 감성을 일깨우며 오감을 자극하는 체험을 통해 멋을 가꾸는 아름다움의 의미를 깨닫게 한다.

## 경복궁 도슨트 투어

이번 행사에서 선보인 경복궁 도슨트 투어에는 경력 10년 이상의 역사 전문 강사가 호스트로 참여했다. 평소 방문했을 때 미처 알지 못했던 조선 왕조의 찬란한 600년 역사를 마주하고 조선 최대 궁궐인 경복궁의 운치 있는 돌담길, 전각, 연못 등을 둘러보며 여유롭게 즐길 수 있는 코스로 준비했다. 왕권을 상징하는 '근정전'부터 왕과 신하가 큰 연회를 주재하거나 외국 사신을 접대하던 '경회루', 왕과 왕비의 일상생활을 엿볼 수 있는 침전 중에서 특히 궐 안의 살림살이를 총지휘한 왕비의 침전인 '교태전', 왕과 왕족들이 휴식을 취하던 '향원정'까지 경복궁 일대를 꼼꼼하게 둘러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미션과 퀴즈 형식으로 구성해 궁궐의 역사를 더욱 흥미롭게 소개하고 한국어뿐만 아니라 영어로도 동시에 진행했다.

📍 투어 코스 경복궁 일대



## 윤동주 문학관 투어

종로구의 대표 명소 중 하나인 윤동주 문학관은 '자화상', '별 헤는 밤' 등의 시를 쓴 한국인이 사랑하는 시인 윤동주의 발자취를 기억하고자 2012년에 세워졌다. 이번 서울뷰티트래블워크를 통해 진행된 윤동주 문학관 투어는 윤동주의 삶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와 도성에 대한 이야기는 물론 한양도성 숲길 하이킹, 아로마 오일을 통한 테라피 등 다채롭게 구성했다. 자연을 닮은 시인이 라고도 불리는 윤동주의 삶을 엿보는 동시에, 국 제공인 허벌리스트가 제공하는 치유 식물과 함께 하는 그린 테라피, 한양도성 숲길에서 허브의 향과 맛, 색을 즐기는 웰니스 하이킹 등의 오감을 만족시키는 체험으로 꾸린 것이다. 마지막으로 윤동주 문학관 카페인 '별뜨락'에서 다과와 차를 제공해 진정한 웰니스의 가치를 느끼게 했다.

📍 투어 코스 윤동주 문학관 → 한양도성 숲길 하이킹 → 윤동주 문학관 카페(별뜨락)



## 어번 사이클링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과 역사 그리고 미래가 공존하는 종로를 자전거를 타며 즐기는 어번 사이클링 액티비티도 진행했다. 서울에서 전통적인 아름다움과 현대적인 건물들이 가장 잘 어우러진 광화문부터 서촌 한옥마을, 인왕산, 청와대, 북촌 한옥마을까지 매력적인 종로구 일대를 전문 가이드와 함께 자전거를 타고 여유롭게 둘러볼 수 있는 코스다. 아쉽게도 이번 행사에 참여하지 못했다면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타고 서울뷰티트래블위크에서 추천한 코스로 달려보는 것을 추천한다.

📍 투어 코스 광화문 → 서촌 한옥마을 → 인왕산 → 청와대 앞 → 북촌 한옥마을



## 인왕산 트레킹

한양도성 인왕산 구간을 따라 걸으며 서울의 과거와 현재를 알아보는 특별한 트레킹도 준비했다. 서울뷰티트래블위크가 엄선한 체험 프로그램 중 하나로 서울의 2000년 역사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인문학 강의와 함께 서울이 한눈에 바라보이는 한양도성 위에서 종로의 멋진 풍경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다. 경복궁역을 시작으로 인왕산 자락길을 따라 수성동 계곡까지 약 5km 내외의 초급 트레킹 코스로 구성해 누구나 쉽게 참여 가능하다. 종로구의 아름다운 공간들을 몸을 직접 움직이며 체험함으로써 그 미적 가치를 오감으로 느껴볼 수 있다.

📍 투어 코스 경복궁역 → 산행 → 인왕산 자락길 → 수성동 계곡

## 경복궁 시티 런

경복궁 시티 런은 전문 마라토너, 크루들과 함께 서울의 중심을 직접 달리면서 체험하는 형식이다. 국보 1호 남대문을 시작으로 정동길, 돈의문박물관, 조선의 법궁인 경복궁을 지나 서울시청까지 달리며 구경하는 러닝 투어로, 신체적 활동을 통해 진정한 아름다움은 단순히 걸로 보이는 모습뿐만 아니라 건강한 신체와 그에 기반한 내면에서 나온다는 데 의의를 두고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아쉽게도 이번 행사 기간에는 우천으로 진행하지 못했지만 평소 마라톤에 관심이 있었던 이들에게 많은 주목을 받았다.

📍 러닝 코스 남대문 → 정동길 → 돈의문박물관 → 경복궁 → 서울시청



‘서울뷰티트래블위크’ 양태오 총괄 디렉터  
**진정한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7일간의 멈춤**

가회동을 비롯한 종로구 일대에서 일주일간 진행된 서울뷰티트래블위크.

양태오 총괄 디렉터를 만나 서울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이 시대의 진정한 아름다움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아름다움의 진정한 이야기를 찾는 여정’. 올해 처음 시행된 서울뷰티트래블워크의 주요 화두다. 서울시는 지금까지의 행사와는 달리 보여주기식 페어가 아닌 시민과 관광객의 온전한 체험을 유도하고, 잘 알려지지 않았던 서울 곳곳의 웰빙 스폿을 소개하고자 했다. 세계를 무대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며 한국의 아름다움을 알려온 양태오 인테리어 디자이너를 행사의 총괄 디렉터로 선정한 이유다.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지 알아가는 것이 진정한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해요.” 양태오 디렉터의 답변에 이번 행사의 의미가 담겨있다. 서울에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휴식의 형태를 체험하며,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지 찾아보는 것. 양태오 디렉터는 서울에서 누릴 수 있는 휴식의 모습을 ‘쉼’, ‘맛’, ‘멋’이라는 3가지 키워드로 압축해 종로구 59곳의 업체를 큐레이션했다.

한국 최초로 건축 전문지 <AD>에서 세계 100대 인테리어 디자인스튜디오에 선정된 태오양 스튜디오를 이끌고 있는 그에게 ‘뷰티’를 화두로 서울시에서 처음 시행하는 행사를 총괄 감독하는 일은 또 다른 도전이었을 테다. “공간을 통해 결국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인테리어 디자이너로서 제가 지향하는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처음 서울뷰티트래블워크의 총괄 디렉터를 제안받았을 때, ‘서울이라는 도시가 공간으로서 어떻게 방문객들의 삶을 바꿔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흥미롭게 임할 수 있었습니다.”

### 서울시의 미감을 고루 갖춘 장소에서 돌아보는 아름다움의 의미

서울뷰티트래블워크는 북촌 휘경재 한옥을 비롯한 종로구 일대에서 개최되었다. 왜 서울시의 25개 자치구 중 뷰티를 찾는 여정의 시작이 종로구였을까. 양태오 디렉터는 종로구가 역사와 문화, 세대와 계층, 도심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역이라고 말한다. 서울시에 위치한 5개의 궁 중 4개가 종로에 위치하며 서울공예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을 비롯해 많은 박물관과 갤러리가 집결해 있다. 다양한 국내외 기업이 광화문을 중심으로 모여 있으며, 청계천이 흐르고 북한산과 인왕산이 호젓하게 자리한다. 무엇보다 양태오 디렉터 역시 약 10년간 가회동의 한옥에 살고 있는 종로구민. “종로구는 그야말로 균형으로 가득 찬 곳이에요. 전 종로구에 살며 발전이 꼭 앞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혹시 놓친 건 없는지, 나아가기 위해 함께 가져가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며 스스로 균형을 잡는 것 역시 발전이더라고요. 서울이 간직한 모든 아름다움의 면면을 갖춘 종로구에서 행사를 시작해야 아름다움의 의미를 재해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양태오 디렉터는 서울뷰티트래블워크를 총괄하며 가장 중요하

게 생각한 3가지 목표를 전했다. 사람들에게 여유를 전달하고, ‘뷰티’라는 단어의 의미를 확장하며, 서울시의 이미지에 변화를 주는 것. “바쁜 도시에서 진정한 아름다움에 대해 생각해보기 위해서는 일단 멈춰서는 여유가 주어져야 해요. 일반적으로 ‘이게 아름다운 거야!’라고 제안하기보다는 스스로 생각해보는 시간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죠. 기존 정책·산업 면에서의 뷰티분야는 화장품, 성형, 시술 등 외적인 면에 치중되어 있는데요. 이제는 내적인 아름다움과 서울이라는 도시에서 찾을 수 있는 아름다움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세계적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K-콘텐츠를 통해 조명받았던 서울의 화려함과 역동성을 넘어, 이곳에도 웰니스를 누릴 수 있는 멋진 공간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바람입니다.”



휘경재 마당에 마련한 서울뷰티트래블워크 포토 존.

### 끝나지 않을 여정의 첫걸음

서울뷰티트래블워크를 ‘쉼’, ‘맛’, ‘멋’이라는 3가지 키워드를 주제로 큐레이션한 이유는 온전한 하루를 선물하기 위함이었다. ‘디근집’ 같은 고즈넉한 한옥에서 숙면을 취하고, 조금 일찍 일어나 따릉이 자전거를 타고 경복궁 주변을 돌며 종로구의 아침을 즐기고, ‘발우공양’에서 건강한 사찰 음식을 먹고, 서울공예박물관에 가서 아름다운 전통 공예를 구경하고, ‘옥인다실’에서 전통차를 배우며 휴식하고, 저녁은 ‘경복궁 시티 런’으로 마무리하는 하루. 양태오 디렉터는 이번 서울뷰티트래블워크가 7일간의 이벤트로 끝나는 것이 아닌, 바쁜 일상으로 돌아간 사람들의 삶 속에서 오래도록 이뤄지는 여정의 첫 시작이 되길 꿈꾼다. “사실 행사가 진행된 7일은 진정한 아름다움을 찾기에 조금 짧은 기간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종로구의 멋진 웰니스 공간들을 소개해주고, 그곳을 연결해 휴식하는 하루의 모습을 제안한 이번 일주일, 행사를 마친 후에도 스스로 자신만의 ‘뷰티 트래블’을 계획할 때 좋은 가이드라인이 되길 바랍니다.”

EDITOR 한동은 PHOTOGRAPHER 이우경  
COOPERATION 서울뷰티트래블워크(seoulbeautytravel.com)

STYLE



# The Warmest

가을과 겨울 사이를 채워줄 따뜻하고 부드러운 니트웨어.

FREELANCE EDITOR YI SUNHWA

PHOTOGRAPHER CHAE DAEHAN

셔츠 안에 겹쳐 입은 화이트 원피스와 크리스탈 이어링,  
옥스퍼드 슈즈 모두 드리스 반 노트.  
청키한 짜임이 돋보이는 코발트블루 스웨터와  
모노그램 패턴 체인 백은 루이 비통. 하늘색 셔츠는 알테.  
브라운 컬러 와이드 팬츠는 막스마라.



시퀀 장식 체크무늬 니트 톱과 원피스는 루이 비통.  
블랙 오닉스 이어링은 콜드프레임.

버건디 컬러 니트 톱은 마레 디 마리.  
구조적인 실루엣이 돋보이는 라운드 넥 스웨터와  
미디스커트는 토즈 골드 이어링은 르메르.





핑크와 퍼플 컬러가 어우러진 체크무늬 슬리브리스 톱과  
미디 길이 니트 스커트, 롱 타이츠, 벨벳 체인 백,  
에나멜 가죽 소재 슬링백 슈즈 모두 사넬.

트위드 소재의 벨티드 블레이저와 오버사이즈 버뮤다 팬츠,  
하트 펜던트 장식 네크리스 모두 구찌. 네이비 컬러 오픈 칼라 니트 톱과  
캐시미어 터틀넥 톱 모두 마레 디 마리. 단정한 로퍼는 토즈



프린지 장식으로 포인트를 준 오버사이트 니트 케이프와  
버건디 가죽 부츠는 토즈, 캐시미어 소재 롱원피스는 마레디마리,  
골드 이어커피는 페르테.

MODEL 나탈리아 HAIR 김귀애 MAKEUP 이숙경  
ASSISTANT 한수연 COOPERATION 구찌 3452-1921,  
드리스 반 노트 3479-1796, 디올 3480-0104,  
루이비통 3432-1854, 르메르 6905-3603,  
마레디마리 3487-3084, 막스마라 1661-4841,  
보테가 베네타 070-4784-4026, 샤넬 080-805-9628,  
알테 763-3635, 콜드프레임 477-0522,  
토즈 3448-0442, 페르테 517-5513



# Curved Jewelry

책을 펼쳐 책장을 넘기는 순간, 자유롭고 유연한 곡선들이 나타난다. 이 부드러운 곡선을 품은 유려한 실루엣의 주얼리들을 모았다.

EDITOR KIM SONGAH PHOTOGRAPHER YUM JUNGHOOON



하와이 화환에서 영감을 받아 옐로와 화이트 골드를 가는 실처럼 끈 다음 가운데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하와이' 링은 부챗살이다.  
18K 옐로 골드에 아코야 진주를 세팅해 자유로운 곡선을 표현한 '어 파인 밸런스' 펜던트, 5개의 아코야 진주가 곡선을 따라 도열한 '어 파인 밸런스' 이어링 모두 타사키.



콰트로 컬렉션 고유의 디자인에 화이트 세라믹을 더한 '콰트로 화이트 에디션 미니 링 원 다이아몬드' 펜던트는 부채꼴. 킴링 모티프의 옐로 골드, 화이트 골드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코코 크러쉬' 투 핑거 링은 사벨 워치 & 화인 주얼리. 원형과 사각의 옐로 골드 및 화이트 골드를 조합한 '석세스' 뱅글은 프레드.

뉴욕 거리의 건축물에서 볼 수 있는 체인 링크에서 영감을 받아 디자인한

로즈 골드의 '노트 더블 로우 다이아몬드' 링은 티파니.

총 0.38캐럿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 36개를 세팅한 핑크 골드의 '저스트 앵 글루' 펜던트 네크리스와

못에서 모티프를 얻은 과감한 디자인의 핑크 골드 '저스트 앵 글루' 링 모두 까르띠에.

뱀의 관능미와 강렬함을 형상화한 '세르펜티 바이퍼 1코일' 브레이슬릿은 불가리.



필름 릴처럼 스스로 회전하는 메커니즘을 반영한 '벨 에포크 릴 화이트 골드 앤 다이아몬드' 링은 다미아니.  
총 1.57캐럿의 다이아몬드를 파베 세팅한 '스텝 크로스오버' 커피 브레이슬릿은 스티븐 웹스터.  
0.31캐럿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볼록한 봄베 형태의 '마크리 클래식' 이어링은 부첼라티.

ASSISTANT 차세연 COOPERATION 까르띠에(1566-7277), 다미아니(515-1924),  
부쉐론(6905-3322), 부첼라티(6905-3490), 불가리(2056-0170),  
샤넬 워치 & 화인 주얼리(080-200-2700), 스티븐 웹스터(2231-1592),  
타사키(3461-5558), 티파니(547-9488), 프레드(514-3721).





# Invitation to the Voyage

바다의 풍경을 섬세하고 서정적으로 묘사한 쇼메의 새로운 하이 주얼리 ‘옹드 에 메르베이 Ondes et Merveilles’. 이 매혹적인 컬렉션을 기념하는 성대한 이벤트가 서울에서 열렸다.

1780년 설립한 쇼메는 경이로운 자연의 아름다움을 주제로 한 주얼리 컬렉션을 지속적으로 선보여왔다. 그중에서도 ‘물’의 테마는 오랜 시간 메종에 풍부한 영감을 제공해왔다. 쇼메가 올해 새롭게 완성한 하이 주얼리 컬렉션 ‘옹드 에 메르베이’는 메종에서 처음으로 오롯이 ‘바다’를 주제로 컬렉션을 완성해 의미가 깊다. 1885년부터 메종을 이끈 조제프 쇼메 Joseph Chaumet는 바다를 향해하는 선장의 아들이기도 했다. 240여 년간의 역사가 담긴 쇼메의 방대한 아카이브 속에는 폭포수와 물방울,

종유석 등의 모티프를 예술적으로 구현한 티아라, 스토타커, 브로치, 헤어 장식, 빗 등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바다와의 끈끈한 유대감을 보여준다. 쇼메가 파리 방돔 광장 12번지에 자리 잡은 지 115년을 맞은 올해, 새롭게 공개한 ‘옹드 에 메르베이’ 컬렉션은 이곳 워크숍에서 계승되고 있는 장인 정신에 경의를 표하는 컬렉션이기도 하다. 새롭게 선보인 ‘옹드 에 메르베이’ 하이 주얼리 컬렉션은 ‘파도의 움직임 Animated Waves’, ‘해안선 Rivages’, ‘바닷속 생물들 Ondes Habitees’ 등 3가지 챕터로 이루어졌다. ‘파도의 움직임’ 챕터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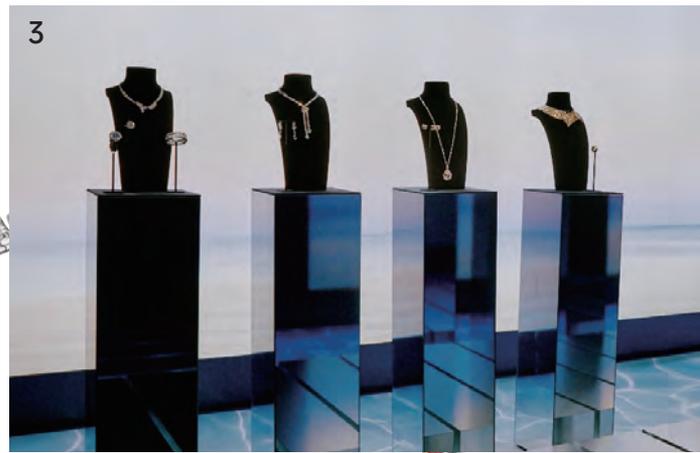
는 3가지 주얼리 세트를 통해 광활하게 펼쳐진 바다가 끊임없이 움직이는 광경을 쇼메 고유의 스타일로 표현했다. 특히 찰랑이는 파도를 다이아몬드와 화이트 골드의 팔메트 palmette 디테일로 구현한 '온 더 워터스 서피스' 네크리스는 변형이 가능한 트랜스포머블 주얼리로, 2점을 각각 분리해 헤어피스로 연출할 수 있다. 또 중앙에 자리 잡은 7.18캐럿의 페어 세이프 다이아몬드 역시 탈부착이 가능하다.

바다와 육지의 경계를 표현한 '해안선 Rivages' 챗터 역시 3가지 주얼리 세트로 해안가를 바라보는 쇼메만의 시선을 담았다. 항구 혹은 작은 만에 정박한 배가 돛을 내린 모습을 표현한 '포츠 오브 콜' 네크리스는 반투명한 물을 연상시키는 다양한 블루 계열의 사파이어와 다이아몬드, 브릭 레드 컬러의 스피넬이 예술적으로 어우러졌다. 바닷속 생물과 이들이 지키는 보물에 관한 스토리를 풀어낸 마지막 챗터는 3가지 주얼리 세트와 '앙크' 브로치 컬렉션으로 만날 수 있다. 브로치는 선원들의 상징적인 타투를 유쾌하게 재해석했는데, 각각의 브로치는 골드 체인을 달아 네크리스로도 착용할 수 있다.

쇼메는 메종의 독창성에 새로운 장을 여는 이번 컬렉션을 기념하기 위해 2가지 특별한 이벤트를 마련했다. 하나는 지난 9월 28일 서울에서 개최한 '옹드 에 메르베이' 하이 주얼리 프레젠테이션. 마치 깊은 바닷속을 여행하는 듯한 느낌을 선사는 디지털 아트와 디스플레이 속에 눈부신 하이 주얼리 제품들이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이어 9월 30일에는 서울 만양트리오 아시아스에서 성대한 갈라 디너 행사를 개최했다. 수영장을 배경으로 한 아름다운 공간에서 모델들의 화려한 주얼리 쇼가 펼쳐졌고, 배우 송혜교와 박형식, 문가영 등이 참석해 특별한 밤을 더욱 빛냈다.

FREELANCE EDITOR 구태은 COOPERATION 쇼메(6905-3305)

- 1 선원들의 타투를 유쾌하게 재해석한 '앙크' 브로치.
- 2, 3 온전히 바다만을 주제로 구성한 '옹드 에 메르베이' 하이 주얼리 컬렉션. 프레젠테이션 행사장 역시 바다에서 영감을 받아 신비로운 분위기로 꾸몄다.
- 4 찰랑이는 파도를 표현한 '포츠 오브 콜(에스칼)' 네크리스.
- 5 생동감 넘치는 해변을 화사한 컬러로 표현한 '언더 더 썬' 링.
- 6 '포츠 오브 콜(에스칼)' 네크리스를 착용하고 갈라 행사에 참석한 쇼메의 아시아 브랜드 앰배서더 송혜교.
- 7 '앙크' 브로치로 포인트를 준 배우 겸 가수 박형식.
- 8 '조세핀' 주얼리를 착용한 배우 문가영.



# Wish List

찬 바람이 겨울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11월, 따스한 겨울을 맞이하기 위해 각 분야 기자들이 추천하는 이달의 주목할 만한 신제품.

## FENDI BAGUETTE 25TH RE-EDITION

탄생 25주년을 맞아 다채롭게 변신한 펜디의 아이코닉한 '바게트' 백. 바게트 빵처럼 옆구리에 자연스럽게 끼고 다닐 수 있고, <섹스 & 더 시티>에서 세라 제시카 파커가 "Oh, This is not a bag. It's a Baguette!"라고 외쳤던 바로 그 백 말이다. 바게트 백 탄생 25주년과 독창적인 스타일을 기념해 김 존스는 세라 제시카 파커 그리고 맨해튼의 상징 티파니와 협력해 새로운 컬러와 비즈, 크리스탈, 시퀸 등을 사용한 바게트 백을 공개했다. '펜디 바게트 25 리에디션' 백은 2000 S/S 컬렉션의 '멀티패시트' 자수 및 마이크로 비즈 바게트에서 영감을 받은 것이 특징. 1만6000개 이상의 터콰이즈 비즈와 900개 이상의 멀티패시트 톤온톤 스톤으로 새겨진 자수가 남다른 존재감을 뽐어낸다. 모노톤 의상과 매치했을 때 그 매력은 배가될 것. EDITOR 김송아

송아지 가족에 터콰이즈 스톤 및 비즈 소재의 '바게트' 백 700만 원대, 펜디(2056-9023)



## MATTE GLOW CUSHION FOUNDATION

버버리 뷰티가 어느 각도에서도 빛나는 고급스러운 피부 표현을 위한 '매트 글로우 쿠션 파운데이션'을 선보인다. 대나무 파우더, 판야나무 꽃 추출물이 피부 유·수분 밸런스를 맞춰주는 것은 물론 다마스크 장미, 다르질링 차잎 추출물이 외부 환경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한다. 버버리 하우스의 아이코닉한 체크 패턴을 장식해 쿠티르 감성을 물씬 풍기는 것 역시 매력 포인트. 페어 워 10호, 페어 쿨 20호 2가지 shade로 출시해 피부 톤에 맞게 선택할 수 있다.

EDITOR 이지형

'매트 글로우 쿠션 파운데이션' 8만8000원, 버버리 뷰티(080-850-0708)



## LEICA Q2 'DAWN'

선율을 입은 카메라다. 라이카 카메라에 그래미 어워드 수상에 빛나는 영국의 R&B 가수 실Seal의 감성적인 가사를 담았다. 반짝이는 빛과 그림자, 일렁이는 황금빛 태양에서 착안해 카메라 위에 검은색 실과 일본의 '와시' 종이를 섬세하게 직조했다. 500대 한정으로 출시한 카메라는 각기 다른 고유의 패턴을 지녀 더욱 특별하다. 이번 협업은 카메라뿐 아니라 실의 대표곡 '키스 프롬 어 로즈 Kiss from a Ross'의 가사를 새긴 로프 스트랩과 한정판 스카프를 함께 구성했다. 스카프에는 멀티미디어 아티스트 아니나 뢰샤이젠 Annina Roescheisen이 어둠 속에 피어나는 빛의 무늬를 표현했다. '라이카 Q2 '던'은 그야말로 사진과 음악, 미술까지 총체적 예술이 담긴 하나의 작품과 같다.

EDITOR 한동은

'라이카 Q2 '던' 964만 원, 라이카 카메라(1661-0405)



## LE SOIN NOIR EYE CREAM & LOTION ESSENCE

지방시 연구소가 수년에 걸쳐 발견한 '바이탈 엘지 추출물'을 가득 담아 새롭게 선보이는 '르 스왕 느와 아이크림 & 에센스'. 극한의 온도와 수압의 조건에서도 견딜 수 있는 바이탈 엘지의 생명력을 담아 피부 본연의 힘을 찾도록 도와준다. '르 스왕 느와 아이크림'은 얼굴 중에서도 가장 연약한 부위인 눈가 피부를 집중 케어해 탄탄하고 매끄러운 눈가 피부를 선사한다. 피부의 전반적인 수분 공급을 증가시켜 피부 수분막을 강화하는 '르 스왕 느와 로션 에센스'는 클렌징 후 스킨케어 첫 단계에 아침저녁으로 사용하면 좋다.

EDITOR 정두민

'르 스왕 느와 아이크림' 24만1000원 '르 스왕 느와 로션 에센스' 16만7000원, 지방시 뷰티(080-801-9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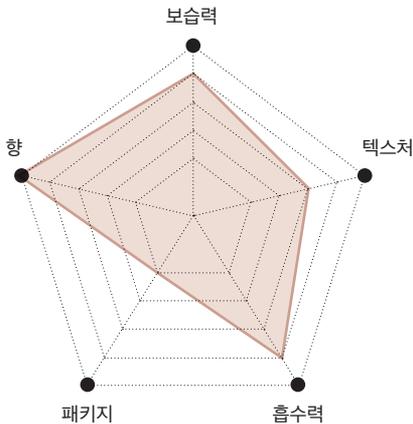
# Hand Care

탄탄한 보습, 매혹적인 향기로 거칠어진 손결을 보드랍게 가꿔줄 핸드크림. 4명의 뷰티 피플이 직접 사용·평가해봤다.



## 멜린앤게츠 비타민 b5 핸드 트리트먼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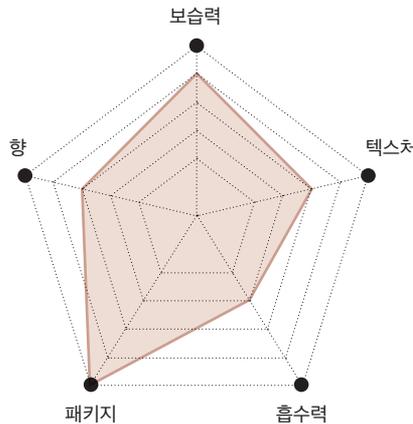
손을 많이 쓰는 직종이라 보습력이 지속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메이크업을 할 때 모델에게 후각적으로도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향도 신경 쓰는 부분이다. 은은하게 긴장감을 해소시키는 향을 선호하는 편인데, 이 제품의 베르가모트 향은 아주 만족스럽다. 도포 후 잔여감이 없고 피부에 빠르게 흡수되어 촉촉한 수분감을 선사한다. 휴대하기 편리한 사이즈도 장점.



**황령경** 메이크업 아티스트. 너무 미끌거리거나 피부 표면에서 걸도는 텍스처의 제품은 피하는 편. 복합성 피부라 제품을 고를 때 피부 유·수분 밸런스를 맞춘 제품을 꼭 찾게 된다.

## 오피신 유니버셀 볼리 포마드 콘크레뜨 핸드 & 풋 크림

오피신 유니버셀 볼리를 알린 시그너처인 손이 그려진 파란 튜브, 쓸수록 빈티지해지는 멋이 더해지는 패키지는 이미 합격. 캐머마일 수액과 시어버터를 함유해 뛰어난 보습력을 느낄 수 있다. 꾸덕한 밤 타입의 제형이라 손의 체온으로 녹여 바르는 것을 추천한다. 건조해지기 쉬운 손등과 큐티클 위주로 꼼꼼히 바르고, 잠들기 전 손과 발에 듬뿍 발라 보습 효과를 느껴보자.



**남가연** 패션 & 뷰티 콘텐츠 에디터. 손이 건조한 편이라 핸드크림을 파우치, 사무실 책상 위에 하나씩 두고 수시로 바른다. 끈적임이 적고 보습력이 좋은 핸드크림을 선호하는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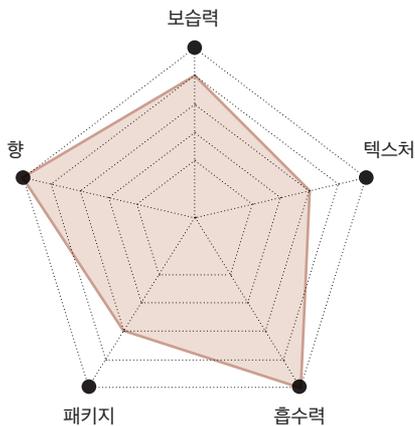


### 로이비 퍼퐁드 핸드크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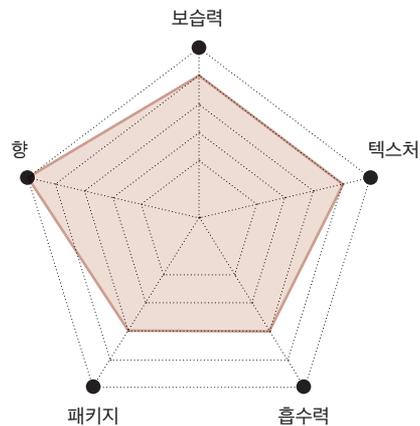
쫀쫀한 크림 타입의 핸드크림으로 끈적임 없이 마무리된다. 특히 핸드크림의 모든 향이 로이비의 시그너처 향기를 담아 향수 못지않은 고급스러움과 지속력을 선사한다. 손 소독제를 자주 사용하는 요즘 건조한 손에 촉촉함은 기본, 수시로 덧발라도 부담 없이 산뜻한 제품이다. 최근에는 캡 디자인을 바꾸고 기존보다 5ml 늘어난 용량으로 선보이는 등 패키지를 리뉴얼했다.

### 니콜라이 휘그 티 핸드크림

가을이 다가오고 있음을 가장 먼저 알아차린 건 자꾸만 건조해지는 손이다. 가을의 무드를 담되 무겁지 않은 핸드크림을 찾던 중 만나게 된 제품이다. 핸드크림은 제2의 향수라 할 만큼 향이 중요한데, 손에 퍼 바르자마자 은은하게 퍼지는 무화과 향이 기분 좋은 싱그러움을 전한다. 또한 시어버터를 함유해 부드럽게 발리면서 산뜻한 마무리감을 선사한다는 점이 매력적이다.



**진유진** 홍보대행사 피알유 대표. 평소에 은은한 향의 제품을 선호한다. 또한 촉촉함은 물론 끈적임 없는 마무리를 중시하는 편. 여기에 패키지까지 예쁘다면 망설이지 않고 구매한다.



**송유정** JTBC PLUS 미디어랩 콘텐츠 에디터. 보습력이 좋은 제품을 선호하지만, 텍스처에 예민한 편. 너무 가볍지도 무겁지도 않은 텍스처를 찾기 위해 꼭 테스트를 해본 후 구매한다.

# Café for Nomad Worker

리모트 워크가 유행을 넘어 일상으로 자리 잡은 요즘. 일하기 좋은 카페를 찾아 떠나는 유목민에게 좋은 선택지가 될 공간 4곳을 소개한다.



## 저마다의 기록에 몰입하는 공간, 프로토콜

플라타너스 가로수가 아름다운 연희동의 건물 2층에 위치한 '프로토콜'. 줄지어 도열한 검은 테이블과 그 위 아르떼미데 조명이라는 건축 스튜디오에 들어온 듯한 인상을 준다. 독일어로 저장 장치, 기록물을 뜻하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이곳은 커피를 비롯한 모든 순간을 기록한다. 자리마다 메모지와 연필을 마련한 이유도 그 때문이다. 이곳의 정체성은 명확하다. 프로토콜 로스터스의 작업실이자 쇼룸. 모든 윈도우를 시향할 수 있는 공간과 슉 한권의 로스팅 작업실이 공간의 성격을 암시한다. 김인기 대표는 각자의 일에 몰두하면서도 프로토콜 로스터스의 커피를 향유하는 공간이 되길 바란다 고 전한다. 커피는 매일 마셔도 좋을 편안한 맛의 하우스 블렌드 '슈퍼 노멀'부터 복합적이지만 은은한 단맛과 잔향을 남기는 다채로운 싱글을 마련했다. 크리스마스, 1주년 등 특별한 날을 기념해 출시하는 커피를 맛보는 것도 이곳의 묘미다. 디저트는 프로토콜의 윈도우를 납품하는 파트너 슉과 협업해 '게스트 디저트' 방식으로 운영하며 매달 새로운 디저트를 선보인다. 11월에는 게스트는 '애니브' 베이커리로, 커피와 어울리는 담백한 구움 과자를 만날 수 있다.



**1** 캐러멜라이즈드한 바나나를 속에 넣고 고소한 호두를 올린 '바나나 노아'.  
**2** 다크 초콜릿의 묵직함 속에 은은한 산미가 느껴지는 하우스 블렌드 '슈퍼 노멀'과 새콤한 산미와 조청 같은 단맛이 매력적인 '케냐 기티투 AB 워시드'.

📍 서대문구 연희로 109 2층  
🕒 오전 10시 30분~오후 10시  
☎ 0507-1389-61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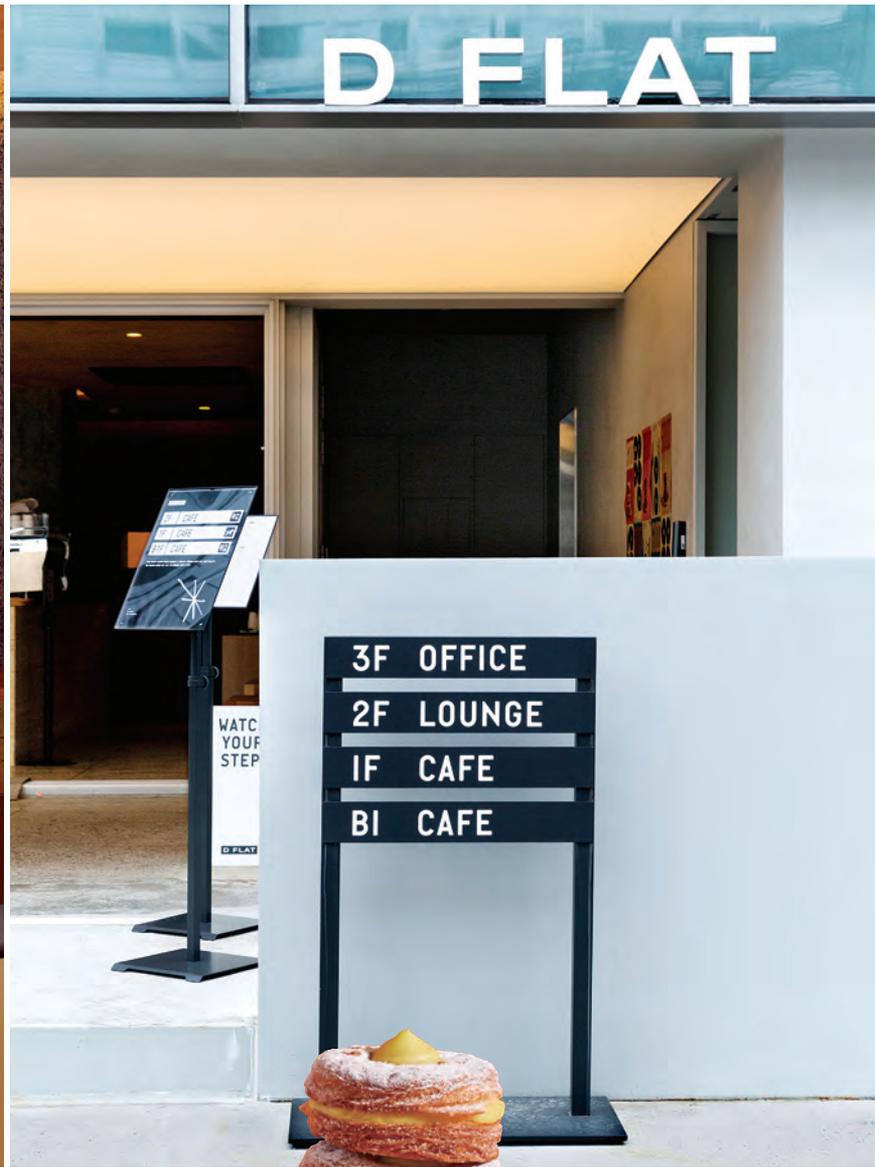
## 프리랜서들의 커뮤니티, 카페 워소베러 잔다리

- 📍 마포구 잔다리로 88 원방빌딩 1층
- 🕒 오전 9시 30분~오후 9시
- ☎ 336-0150

서교동을 무대로 활동하는 프리랜서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카페 워소베러 잔다리'. 공유 오피스 '로컬스티치' 잔다리점 1층에 위치한 카페지만, 회원이 아닌 손님들도 방문할 수 있어 인기다. 홍대 인근이라는 지역 특성상 아트 디자인 관련 업계 노매드 워커들이 자주 찾아, 매장 구석구석 디자인 관련 서적을 마련했다. 카페 워소베러 잔다리는 집중 공간과 릴랙스 공간이 나눠져 있다. 매장 가장 안쪽 탁구대를 연상시키는 파란 테이블이 놓인 곳이 일에 몰두하기 좋은 곳. 널찍한 테이블 하나당 4명이 사용한다. 테이블 위 간이 파티션을 자유롭게 이동 가능해 따로, 또 같이 일할 수 있다. 그 외의 테이블 역시 거의 모든 좌석에 콘센트를 마련해 업무에 지장은 없겠지만, 일반 고객과 함께 사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소음은 있다. 11월 워소베러 잔다리에 설레는 변화가 생긴다. 2층까지 카페를 확장하는데, 그곳에 남산에서 시작한 인기 그로서란트 '보마켓'이 처음 선보이는 주방인 '보키친'이 들어서는 것. 더 넓고 쾌적한 공간에서, 갓 구운 보키친의 베이커리를 바로 맛볼 수 있을 것이다.



- 1 자두 알갱이가 씹히는 상큼한 맛의 '로제 플럼 에이드'.
- 2 달콤한 크림과 깔끔한 라테가 조화로운 '시그너처 아인슈페너'.
- 3 꾸덕꾸덕한 식감이 매력적인 '얼그레이 가토'.



## 업무부터 데이트까지, 디플랫 성수

- 📍 성동구 연무장길 90
- 🕒 오전 11시 30분~오후 10시
- ☎ 466-2560

매력적인 카페가 모여드는 성수동 연무장길에 위치한 '디플랫 성수'. 파주출판도시에 위치한 카페로 사랑받아온 디플랫의 두 번째 공간이다. 지하 1층부터 2층까지 이어지는 넉넉한 공간과 널찍한 테이블, 자리마다 놓여 있는 콘센트 덕에 근방에 거주하는 프리랜서들에게 '작업하기 좋은 카페'로 일찍이 알려졌다. 작업자를 위한 좌석만 있다는 오해는 금물. 아늑한 소파 좌석부터 프라이빗한 좌석까지 공간 곳곳에 배치했다. 지하 1층 역시 천고를 높게 뚫고 창을 곳곳에 배치해 답답하지 않으며, 따뜻한 조명과 목제가구가 편안한 인상을 전한다. 대형 카페인 만큼 웨이팅 많기로 소문난 연무장길에서 기다릴 필요 없는 카페라는 점도 이곳의 큰 장점이다. 메뉴는 커피류부터 상큼한 에이드를 비롯한 논 커피 메뉴, 케이크 등의 다양한 베이커리류를 마련했다. 특히 최근엔 도넛에 크루아상을 결합한 '크로넛'에 주력 중이다. '커스터드 크림' 크로넛, '누텔라 크런치' 크로넛 등이 작업 중 허기를 달래주는 메뉴로 인기가 좋다. 11월부터는 아침 일찍 방문하는 손님들을 위한 간편한 식사 메뉴도 선보일 예정이다.



- 1 '커스터드 크림' 크로넛은 넉넉한 크림과 촉촉한 빵을 함께 즐길 수 있어 가장 인기 있는 메뉴.
- 2 리프레시를 도와줄 '자몽 에이드'.
- 3 시그너처 '플랫 화이트'.



# DESIGN SPOT

## #오늘의숨 #디자인스팟

디자인 스팟은 <럭셔리>, <럭셔리M>, <행복이 가득한 집>, <디자인>, <스타일 H> 등을 발행하는 디자인하우스의 에디터와 마케터가 선별한, 지금 가장 주목할 만한 상업 공간입니다. 카페와 레스토랑, 플래그십 스토어, 편집매장 등 콘셉트와 이야기가 있는 공간을 모아 각 매체의 지면과 SNS를 통해 소개합니다. 디자인 스팟에 대한 다양한 정보는 공식 인스타그램(@designspot.dh)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카페와 공유 오피스의 결합, 세컨드 라이브러리

- 📍 강남구 영동대로137길 6 1층
- 🕒 평일 오전 8시 30분~오후 10시,  
주말 오전 8시 30분~오후 7시,  
화요일 휴무
- ☎ 0507-1356-1278

청담동 한적한 골목에 위치한 '세컨드 라이브러리'는 카페와 공유 오피스, 도서관을 결합한 새로운 작업 공간을 표방한다. 약간의 소음이 있어야 업무에 몰입할 수 있는 스타일의 노매드 워커라면 이곳이 제격. 커피만 마셔도 공간을 이용할 수 있지만, 5시간부터 하루, 10일, 20일, 30일 단위의 회원권 제도를 활용하면 부담 없이 지정석을 예약하고 무료 음료를 즐길 수 있다. 최대 8인이 사용할 수 있는 널찍한 테이블 4개를 갖춰 사내 교육이나 워크숍 대관 문의도 잦다. 인테리어는 업무에 집중하는 데 거슬림이 없도록 깨끗한 화이트 컬러를 사용했다.

카페도 품은 공간인 만큼, 커피 메뉴도 소홀히 하지 않는다. '노 아이스, 노 핫'은 따뜻한 에스프레소를 마시다 보면 조금 달콤하고 차가운 우유가 넘어오며 맛의 반전을 일으키는 시그니처 메뉴다. 부드러운 '크림! 크림!' 역시 달달한 라테 위에 고소한 크림을 얹은 메뉴로 많이 달지 않아 편하게 즐길 수 있다.

EDITOR 한동은 PHOTOGRAPHER 김은지

- 1 많이 달지 않아 부담 없이 마실 수 있는 '크림! 크림!'
- 2 따뜻하고 씹새로운 에스프레소와 차가운 라테를 함께 즐기는 '노 아이스, 노 핫'



'럭셔리'는 눈에 보이는 호사나 물질적인 사치를 의미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물질을 앞서는 정신의 풍요,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삶을 의미 있게 만들려는 노력이 진정한 럭셔리입니다  
<럭셔리>는 명품의 진정한 의미와 예술이 주는 감동을 통해 여러분의 품격을 올려드리는 잡지입니다.

LUXURY DOES NOT ONLY MEAN SOMETHING THAT LOOKS EXTRAVAGANT.  
THE TRUE MEANING OF IT IS THE VALUE OF A LIFE THAT PURSUES  
THE EXTRAVAGANCY IN ONE'S MIND RATHER THAN MATERIAL ABUNDANCE.  
<LUXURY> IS NOT SOLELY HIGH FASHION, BEAUTY AND LIVING BUT ALSO HAS REMARKABLE CONTENTS  
RELATED TO THE ART AND CULTURE INSPIRING PEOPLE.





FEDELI  
MADE IN ITALY



  
**JAEGER-LECOULTRE**

**REVERSO**  
**TRIBUTE**

예거 르콜트르 부티크  
 갤러리아 EAST - 롯데 에비뉴엘 - 롯데 월드타워 - 롯데 인천  
 신세계 강남 - 신세계 대구 - 현대 무역센터 - 현대 본점 - 더현대 서울 - 현대 판교